

가을 무더위…다시 여름?

이달초 광주·전남 낮 기온 30도 넘어…큰 일교차

구름 한점 없는 날씨 영향…비 적고 태풍도 실종

날씨와 구름 상관관계

“가을인데 낮에 왜 이렇게 더운 거죠?”

낮이면 따가운 햇빛이 부담스러울 만큼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을이다. 9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왔던 불청객 ‘태풍’도 올해는 잠잠하기만 하다. 가을이 가을 같지가 않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와 전남의 낮 최고기온은 각각 섭씨 30.1도, 32도를 기록했고, 지난 1~20일 사이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평균

27.5도를 기록하는 등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밤에는 기온이 14도 전후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와 연관이 있다. 낮에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밤이면 지구 밖으로 온도를 방출하는 복사냉각 현상이 일어나는데, 최근 이를 중간에서 방해하는 구름 없는 맑은 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2일 광주의 강수량(46.2mm)이 평년(125.5mm)에 비해 3배 가까이 적은 것도 원인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광주, 목포 등 광주·전남 7개 지점의 가을철 평균 기온도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광주·전남 지역의 2005~2014년 9월 평균 기온은 22.2도로 1991~2000년(21.7도) 대비 0.5도 상승했고, 같은 기간은 10월 기온은 0.7도, 11월 상승은 1.5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9월 태풍도 한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9월에는 2011년 7개, 2012년 3개, 2013년 8개, 지난해 5개, 올해 4개의 태풍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영향을 미친 태풍은 지난 2012년 1개뿐이다. 태풍을 끌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축소되면서 태풍이 일본이나 필리핀 쪽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일교차 ‘12℃’땀 사망률 7% ↑

광주 6.96% 높아져…‘14℃차’ 나주 8.12% 상승

65세 이상 노인층 영향 커…과음·흡연 삼가해야

일교차·사망을 상관관계

최근 광주·전남 지역 낮과 밤의 일교차가 최고 14도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면 평상시보다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팀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4개국 30개 도시의 1979~2010년 사망, 기상 자료를 이용해 일교차와 사망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4개국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

번 연구결과는 대기환경 분야 국제학술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신호에 실렸다. 이번 연구는 광주와 서울 등 아시아 4개국 주요 30개 도시간 일교차 대비 사망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 일교차가 섭씨 1도 증가할 때마다 30개 도시의 평균 총사망률은 0.58%, 순환기계질환 사망률은 0.81%, 호흡기계질환 사망률은 0.90%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30개 도시 평균에 22일 광주(12도)와 나주(14도)의 일교차를 대입하면 총사

망률은 각각 6.96%와 8.12%, 순환기계질환 사망률은 9.72%와 11.34%, 호흡기계질환 사망률은 10.8%와 12.6% 증가한다는 의미다. 단, 일교차에 따른 도시별 사망 증가율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다.

특히, 인천의 경우 일교차가 1도 증가할 때마다 호흡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 증가율이 30개 비교대상 도시 중 가장 높은 2.84%를 기록했다.

일교차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은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더 컸다. 또 30개 비교도시 중 동쪽으로 갈수록, 일교차가 큰 지역일수록 일교차가 총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운동에도 주의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과음이나 흡연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민기자 kki@·연합뉴스

멸종위기 팔색조 전남 남해안서도 서식 확인

국립산림과학원은 22일 “전라남도 남해안 도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팔색조가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도서지역 산림의 환경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종으로서 숲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새들의 생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결과 전남도 9개 도에서 총 41개체가 확인됐다. 여수시 금곡도 13개체로 가장 많았고, 고흥군 거금도 10개체, 완도군 생일도 7개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제주도, 완도, 거제도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것이 알려졌지만 남해안 다른 도서지역도 팔색조가 다수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확인했다.

팔색조가 도서지역 숲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은 과거 1970~1980년대 이후부터 경작지 전환, 땃갈이용 등으로 파괴됐던 숲이 점차적으로 복구돼 서식하기 적합한 30~40년생의 울창한 숲으로 변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원현규 박사(도서산림환경연구팀)는 “긴꼬리딱새, 두견이 등 멸종위기종이 도서산림에서 관찰돼 도서산림의 보전 등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장흥 정남진 전망대에 한류스타 29명 동상



정진홍 조각가, 배용준·최지우 등 청동작품 무상 기증

장흥의 정남진 우산도관광지에 국내를 대표하는 한류스타 29명의 동상이 세워진 다.

장흥군은 정남진 전망대가 있는 우산도 관광지 공원에 조각가 정진홍씨의 한류스타 청동 조각 작품 29점을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정 작가와 작품 기부 협약식을 체결하고 청동작품을 무상으로 기증받기로 했다.

이들 작품은 최지우·김희선·강타 등 유명 한류스타의 이미지를 실물크기로 만든 청동 조각이다. 이 작품들은 일본 한류엑스포파크 특별전, 한일 우정의해 기념사업 특별전, 아시아 한류엑스포 특별전, 제주 올인미술포 초대전 등 다양한 곳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장흥군은 정 작가의 뜻에 따라 정남진

우산도관광지 공원 내에 내년 상반기까지 청동작품을 설치해 일반인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정 작가는 지인의 권유와 함께 정남진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 득량만과 다도해의 풍경, 장흥의 인심 등에 반해 작품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 출신인 정 작가는 앞으로 장흥에서 작품 활동도 하면서 추가적인 작품 기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청동작품 속 배우나 소속 기획사로부터 동의를 대부분 구했으며, 일부 승낙을 받지 못한 배우들은 계속 접촉해 전시를 서두를 계획”이라며 “한류스타 청동작품이 전망대와 더불어 정남진 관광지구 일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충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에너지밸리 구축’ 한전,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개최

내달 12~14일 DJ센터

한국전력(사장 조한익)은 본사가 이전한 나주를 세계 에너지산업 허브(Hub)로 만든다는 ‘에너지밸리’ 구축 계획의 하나로 내달 12~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최초 전력분야 엑스포인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BIXPO : Bit-garam International Exposition of Electric Technology) 2015’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BIXPO에는 전세계 50여개국 2000여명의 전기·전력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200여개 전시 부스가 설치돼 국제 발명대전, 신기술 전시회, 국제 콘퍼런스, 전력회사 CTO 포럼 등이

개최된다.

특히 한국전력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흥미로운 행사가 되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관객들은 전력 신기술 발달로 달라진 현재 생활을 ‘스마트 홈’과 ‘스마트 오피스’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 홈에 입장하면 전등,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에서 사용되는 전력 사용량이 디지털 계기에 표시되고 태양광을 통해 발전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했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망으로 보내는 시스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 오피스에서는 전기자동차를 타고 출근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각 기기의 에너지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으로 관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전의 전력통신망이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해 만들어 내는 실시간 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전주에 부착된 감지기와 웨어러블 기기에 개인의 위치 정보를 보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져 안심 귀가와 실종 예방이 가능해진다.

전기에너지 미래관에서는 2050년에 일어난 일들을 동영상상을 통해 현실화한다. 참가자들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우주 발전소, 움직이는 건물, 해저 주택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관람객은 10월 9일까지 빅스포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http : //bixpo.kr) 참가자들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우주 발전소, 움직이는 건물, 해저 주택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산CC·영광CC 적자 10억3900만원 지자체 부담?

박해자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지자체 대중골프장 불공정 협약”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전국 대중골프장 4곳의 누적손실액 46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해자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친환경 대중골프장 4곳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영광·정선·제천에서 각각 운영 중

인 골프장의 누적손실액이 46억1100만 원에 달한다. 골프장별로는 지난 2011년 개장한 광주 광산 CC는 8억9000만원, 2014년 개장한 영광CC는 1억4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11년 개장한 강원 정선CC는 28억9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개장 초기 3~4년 동안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의 코스 관리장비 리스료와 사후 환경영향평가 비용

탓”이라며 “지금이 끝나는 시점에는 골프장 운영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들 대중골프장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년 동안 직접 운영하고 기부채납한 후 투자금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이를 보충해야 한다”며 “공단이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운영손실 비용까지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한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방부 공고 제2015 - 19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전점검시 폐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29-9 등 15필지

○ 면 적 : 4,521㎡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6.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허가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반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일대지주명 또는 토지소유자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일대지주명 또는 토지소유자	소유자	관계인
1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29-9	전	1,963	120	지연지주명	여수시 돌산읍 327 송유역선 406호	-
2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29-9	전	3,396	308	지연지주명	여수시 돌산읍 3532 송유역선 406호	-
3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29-9	전	3,396	334	도로	지연지주명	-
4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29-9	전	2,712	31	도로	지연지주명	-
5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29-9	전	12,034	446	도로	지연지주명	-
6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29-9	전	706	69	도로	지연지주명	-
7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29-9	전	7,429	387	도로	지연지주명	-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채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